

20181012 제28회 자랑스러운 서울대인 수상 답사

서울대학교 제72주년 개교기념식, 문화관 중강당

존경하는 박찬욱 서울대학교 총장직무대리님과 학(원)장님들, 이홍훈 법인 이사장님, 김병섭 평의원회 의장님, 이정상 교수협의회장님, 이부섭 서울대발전위원장님, 전임 조완규 총장님, 이기준 총장님, 신수정 총동창회장님과 박준희 관악구청장님,

참석하신 교수, 직원, 학생 여러분과 노조 대표 여러분,

그리고 심사와 선정작업의 수고를 해주신 여러분과 이 자리를 빛내주신 후원자 및 동문선후배 여러분,

자랑스러운 서울대인상을 주신 모교에게 우선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분에 넘치는 수상소식을 듣고 한편 놀랐고 또한 우리 모교와 같이 濟濟多士한人材의 寶庫에서 저와 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제28회 자랑스러운 서울대인상을 주신데 대하여 펍 송구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주신 이 큰 상은 개인의 영광을 넘어 국제기구에 진출하여 봉사하는 동문들을 격려하고 앞으로 모교를 위하여 더욱 노력하라는 뜻으로 감사히 받겠습니다.

저는 모교의 캠퍼스에서 학생으로서 법과대학 4년과 당시 법관훈련기관인 서울대학교 사법대학원 1년 반 동안 젊은이의 꿈을 키웠고, 병역과 유학 후 교수로 부임해서는 35년간 우리나라 제일의 영재를 교육하는 행운을 누렸습니다. 저는 동승동과 관악에서 보낸 총 40여년 세월을 회고할 때마다 보람과 뿌듯함을 느끼며, 일취월장 힘차게 발전해나가는 모교와 동문들의 소식을 접할 때마다 기쁨과 든든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는 과연 나에게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동문마다 다를 것입니다. 저에게 서울대학교란 끊임없이 미래를 위한 기회를 창출해준 꿈의 원천입니다. 모교는 제 인생의 전부였기에 제가 국제형사재판소의 재판소장으로 봉사하는 동안에도 서울대학교가 길러준 지성과 졸업생 선후배동문들의 성원으로 인하여 미력이나마 세계평화에 기여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급속한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법학분야는 제가 일찍이 모교에서 배운 바와 같이 평화, 인권, 정의, 복지, 민주주의 등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규범과학으로 거듭나서 현재에는 통찰력 있고 행동하는 법률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양심과 법조윤리를 지키면서도 판결을 통하여 새로운 국제법을 창조하고 더 나은 국제질서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었던 능력과 덕목은 모교의 교실에서 배태되고 양성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교는 이처럼 저에게 원대한 꿈을 심어주고 인류애를 길러준 고향이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학교 학생들은 세계시민으로 성장하여 우리가 사는 세상을 좀더 안전하고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관악캠퍼스에서 특혜보다 공정, 주체성과 아울러 국제성, 합리주의와 인본주의, 성취 자체보다 끊임없는 지적 호기심, 즐거운 사색과 아울러 활기찬 행동, 치밀한 계산과 포용성을 기르면서, 체념 대신 분발하고 자학 대신 자존으로 선구자적 역할을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저는 자랑스러운 서울대인으로서 우리나라와 세계평화를 위하여 몸바칠 것을 다짐하면서 수상소감에 같음하고자 합니다.

